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
 (담당: 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010-2112-1970 koco2co@gmail.com)
제 목 [보도협조]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1. 09. 13.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현 유엔 미얀마 대사(U Kyaw Moe Tun)의 대사직 유지를
승인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총회에 엽서 발송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일시·장소 : 9. 14. (화)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9월 14일(뉴욕 현지시간) 제 76차 유엔 총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총회에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미얀마 대사의 교체 여부 결정 등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헐적으로 내 왔을 뿐 번번히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미얀마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미얀마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유엔 총회를 앞두고 한국과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는 유엔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가 초 모 툰(U Kyaw Moe Tun) 현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의 지위 유지를 승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시민사회단체 연명 운동을 전개, 미얀마 시민사회를 포함한 358개 단체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0일 뉴욕 주재 각국의 유엔 대표부에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도 미얀마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대표가 유엔 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시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불교행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행동, 해외주민운동연대는 지난 8월 20일부터 “유엔에 보내는 1만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엽서는 ▶ 유엔이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할 것 ▶ 유엔이 초 모 툰 현 대사의 대사직을 유지시킬 것 ▶ 유엔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채택할 것 ▶ 유엔이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교계를 비롯해 지역시민단체,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 이에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9월 14일(화) 오전 11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기자회견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을 개최합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각국 유엔 대표부로 보낸 서한과 엽서 보내기에 동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유엔 총회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기자회견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 일시·장소: **2021년 9월 14일 (화) 오전 11시, 외교부 앞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단체)
- 프로그램
 - 사회_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발언1_여암스님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불교행동)
 - 발언2_양다운 활동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행동)
 - 발언3_엽서 작성 시민
 - 기자회견문 낭독_ 김기남, 상현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 유엔에 엽서 전달 퍼포먼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